

올림픽이 낳은 명암

중국 베이징에서 날아드는 올림픽 '금빛 낭보'로 온 나라가 들쭉거리고 있다. 그러나 시차가 한시간밖에 안되는 베이징 올림픽은 한밤중 길거리 응원 대신, 휴대전화·인터넷을 통한 IT 응원 또는 가족 응원으로 응원의 양상을 바꾸었다. 올림픽 승전보로 인해 업계의 특수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 IT 응원 유행, 길거리 응원 퇴조 = 조선대 생 강록연(25)씨는 12일 오전 11시께 학교로 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DMB 방송을 통해 올림픽 수영 200m 결승에 진출한 박태환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다.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따내자 버스 안은 승객들의 환호로 가득했다. 강씨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달리 시차가 거의 없어 휴대전화만 있으면 만나 오케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흔히 볼 수 있었던 길거리 응원을 찾아 보기 힘들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청 4거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간 축구경기 길거리 응원을 계획했으나 참여 인원 저조를 우려해 학교안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날 조선대가 학내 응원전에도 불과 100여명의 학생·시민만이 참가했다.

◇유형업소 한산...귀가 시간 빨라져=직장인들

길거리 대신 IT로 응원 "수영 배우자" 문의 빗발

의 귀가시간이 빨라지면서 유형업소는 몰살을 겪고 있다. 회사원 이찬호(31·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올림픽 경기를 본다"며 "올림픽이 가족간 화합을 다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업소는 턱사리를 맞고 있다. 올림픽 개막 이후 매출이 20~25% 가량 떨어졌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Y호프집 주인은 "휴가철인데다 올림픽까지 겹쳐 매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며 "올림픽 승리를 위해 TV까지 새로 설치했는데 파란만 날리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영장 문의 급증...극장가 점점유업="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선전이 수영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원 송은영(여·29)씨는 "전부터 수영을 배우고 싶었는데, 최근 박태환 선수의 경기를 보고 수영을 배우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광주 H실내수영장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인데도, 수영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10여통 걸려오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수영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여름성수기 극장가는 관객 수가 줄어 몰살이다. 지난 9~10일 광주의 멀티플렉스 극장인 L영화관 관객 수는 8천18명으로 전주인 2~3일 주말 9천578명에 비해 19.5% 감소했다. 8월 초순이 통상적으로 여름 극장가의 관객 수가 절정에 이르는 때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 17일 100회 촛불 집회 이후엔 주말에만 개최할 듯

광주 촛불집회가 오는 17일 '100회 기념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주말에만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광주·전남비상 시국회의'는 지난 5월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처음 열린 촛불집회가 오는 17일 '100회'를 맞아 대규모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대표자 회의 를 열어 '100회 기념 촛불집회' 개최와 이후 촛불집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100회 촛불집회 이후 평일 집회는 열지않고 주말에만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유통 및 판매체제를 추적 감시하고, 불매운동 등을 펼치는 '생활민착행' 반대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시국회의는 금남로에서 매일 개최되는 촛불집회 참가인원이 줄었고, 미국 쇠고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반대 집회에만 힘을 쏟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시국회의의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실질적인 반대운동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김치 맛있지?" 조선대가 마련한 '2008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일본 대학생들이 12일 조선대 사실실에서 '김치담그기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일본 와세다대와 시즈오카대에서 온 16명의 참가자들은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조선대 기숙사에 체류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달라 환승 불편

광주 대중교통 활성화 위해 통합요금제 도입해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무료 환승체제가 구축되면서 환승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요금체계가 서로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카드 사용·환승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무료 환승제도 시행 이후에도 요금은 광주시

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체제를 일원화하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통합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교통카드 이용률과 환승 비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광역대 광주시장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직후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운전자들의 불친절 등으로 최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며 시내버스 서비스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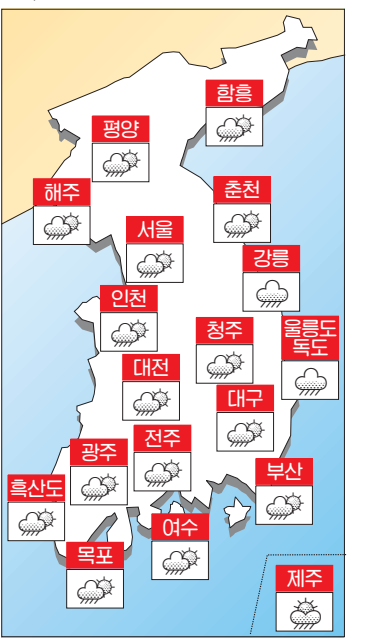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무더위 주춤

흐리고 한 두차례 비온뒤 개새다.

8월 13일 (음 7월 13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Busan, and Jeju, showing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0.5~1.0m 전남도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0.5~1.5m 전북도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0.5~1.5m

▲해돋이 05:51 ▲해질 19:23 ▲달돋이 17:12 ▲달지기 01:52

◇주간날씨 기상내선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showing daily weather forecast for the week of August 14-19, including high/low temperatures and weather icons.

"광주시 공무원 해외연수 88% 관광성"

'참여자치 21' 개선 촉구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가 거액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참여자치 21'이 지난 2005년~2007년도 '광주시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3년 동안 32억원의 예산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지출했지만 전체 연수 589건 중 313건(88.2%)이 관광성 외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 21'은 ▲'간부 양성연수' '선진행정연수' '퇴직공무원연수'를 즉각 폐지하고 ▲해외연수 표준안을 제도화하는 한편 ▲연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 등을 주문했다.

2007년 8건으로 배로 증가했으며 여기에 쓰인 예산만 4억원에 달한다. 2억원의 예산이 지출된 '퇴직공무원연수'도 2건에서 4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체 연수자 1천474명 중 2회 이상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만 213명(15%)인 것으로 나타나 원칙 없는 연수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 21'은 ▲'간부 양성연수' '선진행정연수' '퇴직공무원연수'를 즉각 폐지하고 ▲해외연수 표준안을 제도화하는 한편 ▲연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을 교원성과급 최대 100만원 차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성과급의 차등 폭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고 등급도 늘리기로 해 교원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열린 교직원단체 회의에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석했다.

지금 안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고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1등급(상위 10%, 354만7천830원)과 4등급(하위 30%, 253만2천650만원)의 격차는 101만5천180원, 3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상위 30%, 314만3천만원)과 3등급(하위 30%, 256만4천530원)의 차이는 57만8천470원이다.

Advertisement for '대리점 모집' (Franchise Recruitment) for a company named '대리점' (Daeryeom), featuring images of food and a person.

Advertisement for '한아름에탁금' (Hanareum to Takgeum) offering a 6.50% interest rate for 1 year, featuring a smiling man and a laptop.